누님을 기리며

형제사랑

형제자매 사이의 사랑을 전통에서는 우애라 부른다. 요즘 우애란 말을 꺼내기가 머쓱하다. 유산이나 부모 봉양 등의 문제로 형제간에 다투기 일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형제가 하나 아니면 둘이고, 그마저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풍조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에 앞서 경제체제와 사회구조의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어찌 보면 자식을 낳고 안 낳은 문제는 그 사람의 인생관과 노후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된 원인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애라는 말을 꺼내는 일도 신세대에게는 영양가 없는 짓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제목처럼 '누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성에 대한 문제여서 조금 나을 것 같다. 적어도 세상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니까. 게다가 남자들에겐 자기 애인이나 부인이나 어머니도 여성이니, 그나마 관심은 있을 듯하다.

그래서 이 글은 형제 사이의 사랑, 그 가운데서도 남동생이 돌아가신 누나를 그리워하는 글 속에 녹아 있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조선시대 여성들의 보편적 삶의 한 단면을 살펴보려고 한다. 더 나아가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조선시대 '보편적 여성상'이 어떤 것인지 글 속의 표현에 투영된 가치를 추출해 보려고 한다. 거기에는 비판할 점도 있고 여전히 가치 있는 면도 있을 것이다. 각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면 되겠다.

관련 자료는 이재(李縡)의 문인 민우수(閔遇洙, 1694~1756)의 『정암집(貞菴集)』에 수록된 「제자씨문(祭姊氏文)」, 「제백씨장령공문(祭伯氏掌令公文)」의 제문과 「자씨행장(姊氏行狀)」과 「백씨통훈대부행사헌부장령부군행장(伯氏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府君行狀)」의 행장 등이다.

민우수의 가계와 형제자매

민우수의 본관은 여흥(驪興)으로, 자는 사원(士元), 호는 정암(貞菴)이다. 민진후(閔鎭厚, 1659~1720)의 아들이며,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의 손자이자,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외증손이다. 그의 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우수는 서인의 학맥을 잇는 인물로서, 호락논쟁과 노론·소론 대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여흥 민씨는 본래 회덕·유성 지역의 사족이었다. 17세기 이후부터 조선 후기의 중요한 가문으로 성장하였다. 민시중(閔蓍重, 1625~1677)·민정중(閔鼎重, 1628~1692)·민진장(閔鎭長, 1649~1700)이 문장으로 명성을 얻었고, 특히 민시중·민정중·민유중·민진주(閔鎭周, 1646~1700)·민진장·민진후(閔鎭厚)·민진원(閔鎭遠, 1664~1736) 등이 학문적·혈연적으로 송시열·송준길과 연계되면서 정치적으로 서인·노론으로 정체성을 띠게 되었다. 또 민유중이 송준길의 사위가 되면서 그의 자손들이 송시열 문하에서 기호학파의 학통을 계승하여 효종~숙종 대에 양송(兩宋)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였다.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서울과 회덕·유성을 오가며 사대부의 삶을 영위하였다.

또 한편 여흥 민씨는 양주군(楊州郡)에 새로운 선산을 마련하여 선묘를 천장하면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된다. 양주로 선영을 옮긴 여흥 민씨는 자연스럽게 안동 김씨와 학문적·혈연적으로 연계되고 정치적으로는 동지가 되었다. 민진후와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의 사위로 동서 간이었고, 민정중의 손자인 민계수(閔繼洙)와 민유중의 손자인 민창수(閔昌洙)가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의 사위였다. 여흥 민씨의 자손들은 이러한 가문의 배경으로 석실 서원을 자주 왕래하며 당시 낙론계의 종장으로 추앙받던 김창협·김

창흡에게 사사하였다. 또한 민유중의 외손이자 민우수의 외사촌인 이재(李縡)는 낙론의 학맥을 계승하는 동시에 영조 전반기의 대표적인 산림이었는데, 민우수 역시 그 학맥을 계승하여 18세기 후반 낙론의 지류를 형성하게 된다. 게다가 민우수의 아들 백겸이 이재의 사촌 이구(李絿)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또 다른 인척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각별했다.

민씨 집안의 특이한 점 하나 더 언급하면, 사극에 단골로 나오지만 1680년 민정중의 딸이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仁顯王后)로 간택되면서 왕실과도 인척 관계를 맺게 된다.

민우수는 1743년 사헌부 지평이 되었고 1750년 통정(通政)으로 승차하면서 공조참의 겸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이 되었으며 1751년 사헌부대사헌을 거쳐 성균관 좨주·세자찬선(世子贊善)·원손보양관 등을 역임하였다. 그가 20세 때 생원이 되었을 무렵 소론인 윤증(尹拯, 1629~1714)을 공격하는 선비들의 상소를 주도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의 병신처분(丙申處分)을 받아내는 데에 일조하였으나, 정국이 바뀌어 1721년 경종이 즉위하고 곧바로 신임옥사(辛壬獄事)로 인해 노론 사대신(四大臣)이 사사되자, 민우수 집안 역시 화를 당하게 된다. 처남 윤지술(尹志述, 1697~1721)은 죽고, 중부(仲父) 민진원(閔鎭遠)과 매부 김광택(金光澤, 1684~1742)이 유배되었다. 민우수는 그 한 해 전에 부친상을 당하여 여주(驪州)에 장사를 지냈었는데, 이 옥사로 말미암아 여주로 돌아가 학문에 전념하게 된다.

여기서 매부 김광택에 대해 조금 언급한다면, 본관은 광산(光山), 호는 존재(存齋)이고 1721년 진사과에 합격하였으며,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의 손자이다. 1722년에 목호룡(睦虎龍, 1684~1724)이 노론 명문가의 자제들인 김용택(金龍澤, 1680~1722) 등이 경종을 시해하려 하였다고 고변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형 김용택이 사사되고 동생인 김광택이 연루되어 경상북도 영일군 봉산면에 유배되었고, 1725년 유배에서 풀려나 여주에서 우거하다 생을 마쳤다.

이 글은 민우수가 여주에 살 때 그의 글을 통해 밝힌 내용에 근거한다. 그의 자형 김광택이 1725년 유배에서 풀려나 여주에서 살다가 1742년 10월 5일에 죽었는데, 그의 누나도 이틀 전 10월 3일에 죽었고, 또 한 달 남짓 사이인 11월 5일에 그의 형 민익수(閔翼洙, 1690~1742)도 죽었다. 그래서 그들의 제문과 행장에는 민우수의 형제애와 누나에 대한 그리움이 오롯이 남아 있다.

형제 사이의 우애

앞서 언급한 자료를 보면 민우수는 장성한 형제가 적었다. 백씨(伯氏)라 언급하는 형과 누나가 전부인데, 누나가 한 명 더 있다는 연구자의 설도 있다. 아무튼 형제가 적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형제자매 사이에 정이 애틋할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형제 사이의 우애를 강조해 왔는데, 특히 율곡의 『격몽요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 사상의 기원은 뭐래도 『논어』 속의 효제(孝弟)와 관련이 깊고, 『소학』 등에서 더욱 부연하여 강조하였다.

민우수의 부친은 1720년에 작고했는데 이때 본인은 26살, 형 익수는 30살이었다. 그때 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아직 어머니도 계시고 게다가 형이나 누나가 있어서 그들을 많이 의지했다고 한다. 나이상으로는 성인이지만, 그만큼 부모에 대해 의지하는 마음이 컸음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733년 그가 39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갔는데, 그는 "양친을 모두 잃어 의지할 데 없이 외로이 살았으나 이때는 그래도 누님도 계시고 형님도 계셨다."라고 하여 그들로부터 위로받고 의지해 살았다고 한다. 또 그는 "우리 누님과 형님은 부모님과 닮은 점이 있어서 마음가짐과 일 처리부터 용모와 행동까지 실로 어슴푸레 부모님을 다시 뵙는 듯

하였으며, 우리 형님과 누님은 저를 정성껏 보호해 준 부모님과 다를 바 없고, 게다가 부모님의 마음과 행동·말씀·모습이 형님과 누님에게 있었으니, 슬픔을 잊고 마음을 위로하며 생명을 보존하여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덕분이겠는가?"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글을 보면, 형이나 누나가 마치 살아계신 부모님처럼 느껴진다. 특히 글쓴이가 막내라서 더욱 그런 점이 있었겠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 사이의 우애가 없었더라면 그런 표현은 등장할 수 없다. 관련 사례가 하나 있다. 어떤 분이 젊었을 때 자기 아버지와 평소에 갈등이 많았고, 그래서 이후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 그분의 머리카락이 허옇게 변할 때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그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그 아버지를 닮은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랐던 일이다. 만약 사이가 좋았더라면 놀랄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가? 부모는 평소의 행동에서 자식이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는 성현의 엄중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교육학적 원리이기도 하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여기서 형제애를 승화한 그의 형이 한 말이 의미심장하다. 곧 그의 누나가 죽었을 때 "사람은 모두 죽음을 슬퍼하니, 나는 어린아이일 때에도 남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은 적이 없었네. 그러나 이미 늙어 여러 차례 상사(喪事)를 겪고 나니 사는 것이 슬픈 일이지 죽는 것은 슬퍼할 게 못 된다는 것을 알았네. 대개 죽은 자는 까마득히 의식이 없는데 어찌 죽은 사실이 슬프다는 점을 알겠는가? 오직 산 자는 친애하는 정에 휩싸이고 삶과 죽음의 변화에 아파하여 덩그러니 홀로 남은 신세가 적막하니, 이러한 슬픔은 죽은 자에 비교할 게 못 되네."라고 한 말이 그것이다. 곧 슬픔은 산 자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성숙한 성인(成人)이 다른 성숙한 성인에게 가족이나 타인의 죽음을 두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다. 곧 형제 사이라도 인격이 성숙했을 때만 해줄 수 있는 말이다. 학문을 한 선비이니까 가능했다. 오늘날도 성숙한 사람은 이래야 한다.

조선시대 여성상

민우수의 누나 민씨는 1687년에 태어났으니, 그보다 7살이 많고 그의 형 민우수보다 3살 위이다. 16살 때 김광택에게 시집갔다. 김광택은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5대 자손이다. 김광택이 유배를 떠났을 때 임신한 몸으로 따라갔고, 적소에 다다라서 가까스로 분만하였다. 그가 1725년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큰 병을 얻었는데, 그때 그의 누나가 객지 생활의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병을 돌보아 낫게 하였다. 더 이상 서울에 머물 수가 없어서 마침내 여주에 임시로 거처하다가 남편과 함께 생을 마감했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초점은 민우수가 그의 누나를 추모하면서 남긴 평가이다. 물론 그 평가는 대부분 사실일 수도 있으나, 누나가 죽은 뒤 얼마 되지 않은 뒤에 쓴 제문과 행장이라는 점에서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좋은 점 위주로 다소 과장해 썼을 가능성이 크고, 그 '좋은 점'은 고스란히 당시 이상적 여성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해석이다. 고인과 가까운 사람이 고인을 좋게 평가하는 일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일단 그의 말을 보자.

"누님은 온화하고 유순하면서도 대의(大義)에 밝고 정숙하고 명철하면서도 순덕(順德)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내면에 아름다움이 온축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 과시하는 빛을 드러내지 않고 은혜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면서도 절대로 스스로 자랑하는 뜻이 없었으니, 그저 한결같이 겸손하고 신중하고 자애롭고 너그러우며 정밀하고 검속하고 간소하고 합당할 뿐이었다."

인용문 속의 온화(溫和)·유순(柔順)·정숙(貞淑)·순덕(順德)은 주로 여성에게 강조되는 인품의

덕목이다. 이는 여성에게 남성을 따르는 수동성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현대인 특히 여성들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남성 위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이글에서 그것만 보면 일면적 고찰이다. 대의에 밝음과 명철, 내면의 아름다움과 과시하지 않음과 은혜를 미루어 남에게 미쳐도 자랑하지 않음과 정밀·검소·간략·합당은 대개 당시의 남성 전유물로 오해하고 있는데, 남성을 순순히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군자다운 면모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물론『예기·내칙』이나『소학』등에 여성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하나의 군자로서 인품을 갖춘 여성상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활동은 어떠한가?

“내외 친척과 위아래 동서들 사이에서 처신하면서도 역시 모두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살림살이가 풍족하든 어렵든 함께 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 덕에 감복하여 세월이 오래 지날수록 잊지 못했다. 집안일을 건사하는 데에는 한결같이 온화함과 삼감으로 하여 쓸데없이 큰 소리를 내거나 성난 얼굴빛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모든 일이 절로 다스려졌고, 감내하기 매우 어려운 모든 재앙과 딱하고 어려운 사정도 역시 모두 여유 있게 대처하였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지극하되 매번 가르쳐 인도하고 경계하여 감히 학업에 태만하거나 그만두지 못하게 하였으니, 자식들도 가르침을 받들어서 스스로 학문에 힘썼다.”

이 인용문은 사대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다. 살림살이와 자녀 교육과 친인척 관계 등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모습이다. 물론 이것은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내외의 역할 분담에 따른 것이다. 다만 현대와 달리 사회적 역할이 거의 없어도, 여성의 주도적 역할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 내용은 사대부 집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역사를 통시적으로 바라보아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기에, 이 여성상도 보편적이기보다 사대부 남성이 바라는 그것이라 보면 좋겠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보편성이 있어 취할 점이 없지 않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참고 문헌

김은정, 「『정암집』해제」,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국역『정암집』(https://db.itkc.or.kr/)